

# 남원시,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

## 소규모수도시설 112개소 연중 수시로 유지복구·긴급복구 공사 시행

남원시는 올해 시민에게 맛있고 건강한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최고수준의 수도물 생산·공급'과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설정하고 상수도 각 분야에서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최고수준의 수도물 생산·공급을 위해 각종 상수도 공사 및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112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유지복구 공사와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산곡동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가정 내 수도 계량기를 설치, 해당 지역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

급하는 배수지계통 사업을 실시한다. 산동·대강배수지 계통 사업을 통하여 등구,평선 마을 등 올해 총 9개 마을에 급수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덕과배수지 계통 사업으로 상수관로 9.0km를 부설, 연내 보절신기마을 등 4개마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름철 탁수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도물이 가정까지 공급되도록 동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한다. 사업대상지는 시내일원이며 해당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11.0km를 교체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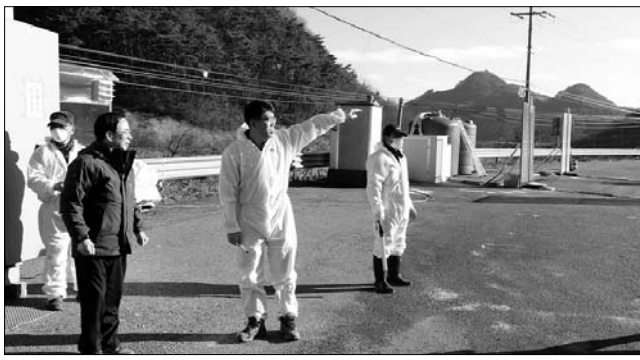
또한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 해당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한다. 2017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가 계획되어있는 만복사지 주변, 고죽동 황죽마을, 조산동, 노암2동 등에 대해 해당지역의 노후상수관로 6.0km를 교체하여 누수

되는 물을 막고 유수율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1월에는 '수도물 품질결과 보고서'를 각 수유가에 배부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수도물 수질검사 자료를 수록하여 남원시 수도물 품질의 우수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수도물 생산 및 공급과정 안내, 수도물 관련 정보를 담아 남원시 수도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받아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공사 추진 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 공사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알리고 주민협조를 구한 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이 중갈착을 방지하여 예산절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설 명절 AI 청정임실 사수 '총력전' 벌여

심 민 군수를 중심으로 임실군이 설 명절 기간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임실' 사수에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28일 현재까지 임실군은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심 민 군수는 설날인 지난 28일 명절연휴에 강추위 속에서 방역초소에서 고생하는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내 방역초소를 직접 방문했다.

심 군수는 "날씨도 춥고 설 명절연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방역초소 근무에 애써줘서 감사하다"며 "AI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군을 AI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심 군수는 특히 명절을 앞둔 간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AI가 심각한 상황에서 맞게 된 명절이니 만큼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해 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관원과 간진, 신덕초소에 비상근무자를 배치·운영했다.

심 군수는 설날인 지난 28일 명절연휴에 강추위 속에서 방역초소에서 고생하는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내 방역초소를 직접 방문했다.

심 군수는 "날씨도 춥고 설 명절연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방역초소 근무에 애써줘서 감사하다"며 "AI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군을 AI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빈곤층 자활근로사업 실시

### 5억 4000여만원 투입... 안정된 일자리 제공

순창군이 빈곤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생계안정을 위해 차별화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5억 4천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근 관내 생계·의료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해 참여자 40여명을 선발했다. 참여자들의 적성과 이력에 맞는 참여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에 나눠 참여하게 된다.

근로 유지형은 환경정비나 복지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관심을 받는 분야는 시장진입형이다. 실제 올크린 청소사업단은 지난해말 시장진입형에서 '순창하안세상'으로 본격 창업해 지역 청소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명절 터미널 화장실 청소 등 사회 공헌활동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백세놀이 건강원 등 자활센터를 통해 독립한 자활기업은 7개 기업 28명에 이른다. 사회서비스형은 자활능력은 물론 사회공헌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군은 행복사랑도시라, 화해, 풍이랑 두부랑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풍이랑 두부랑'사업단은 우리콩을 원료로 친환경 두부를 만들어 지역내 학교급식, 요양원, 단체급식에 납품하고 도시락지원사업 등에 연계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하는 물론 로컬푸드 정착과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규완 통합보장계장은 "자활사업의 최종목표는 기업 창업을 하여 자립하는데 있으므로 7개 자활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존사업단의 건실한 운영과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근로능력이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빈곤층의 생계안정을 보장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2016년도 자활사업 평가에서 건실한 사업추진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자활센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3번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농기센터, 2기종 위탁교육 실시 내달 8일 ~ 10일까지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 중장비인 굴삭기, 지게차 등 2기종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사고 방지 및 임대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군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2개로 반을 편성해 12시간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기계안전교육에 참석한 농기를 대상으로 120명을 선정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은 이수증과 함께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과 차량등록 담당에 가서 5년 안에 면허등록을 해야 하며, 참고로 지게차의 경우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소형중장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구연 소장은 "소형중장비 면허를 취득한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임대 수요에 충족되도록 소형 굴삭기 등 20여대를 상반기 내에 추가 구입할 계획이라 농가들이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많이 이용할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16년 본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87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2교육생 수요 및 반응 등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업포관리계(650-5122)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취득한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임대 수요에 충족되도록 소형 굴삭기 등 20여대를 상반기 내에 추가 구입할 계획이라 농가들이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많이 이용할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16년 본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87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2교육생 수요 및 반응 등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업포관리계(650-5122)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고창읍성 일원 생태휴식공간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의 대표관광지 고창읍성이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들의 녹색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은 사계절 내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창읍성 일원에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공모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역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5억원(전액 국비)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 징수한 금액으로 이를 생태환경 복원과 자연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켜 자연과 함께

휴식, 놀이,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완공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읍성 주변의 유휴 방치된 공간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도록 생태공간으로 복원하겠다"며 "자연마당, 운곡습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등과 연계해 군민과 관광객, 학생들의 즐거운 생태 체험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략은 이번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지역 내



## 고창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일제 소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 지역 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 564개 전 마을 안길 등에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했으며 다음달 1일에도 일제 소독에 나설 예정이다.

대규모 농가는 자체 소독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2개반)이 농가를 순회하며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축협에서 주관해 선운산농협과 하서농협으로부터 무인헬기 2대를 지원받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14개 읍·면 자율방역단 560여명이 마을별 일제 청소와 강도 높

은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일제소독에 사용되는 모든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행정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함께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AI 조기 종식을 위해 군민들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축산농가에서도 차단방역과 엄격한 관리 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5일 기준 고창군 동티저수지에는 철새 35여만 마리가 머물러 있으며,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9일 신립면 종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한건의 추가발생 없이 AI의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춘향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남원시의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마케팅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한국일보 공동주최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탁월한 자치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장관표창을 이끌어낸 남원시의 '통합마케팅'은 신지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요소를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 농업협동조합과 원예협동조합을 묶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춘향애인'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출범시켜 유통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또한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여 전국소비자마당을 구축하는 데에까지 나아가 생산, 유통, 소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략은 이번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지역 내

평가자대와 산간지대의 혼재를 극복하여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킨 지역 최적화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남원시는 통합마케팅을 통하여 출범 첫해 600여원의 매출을 올렸고, 작년에는 800여의 매출을 올려 급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에는 '춘향애인' 브랜드가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하고,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인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그 노력을 인정받아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의 통합마케팅이 지방자치경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한국 최고 농산품을 뜻하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설 명절을 맞아 공용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대에서 명절선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명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를 찾아 전단지 배부하는 등 가두캠페인을 펼치면서 집중 홍보를 했다.

김봉춘 서장은 "올 설날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마을 담당경찰관 정비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북쪽과출소(소장 변용상)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 예방활동 및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등 편리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과의 상시 소통, 공감치안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있던 "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을 상반기 지역경찰관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비함과 동시에 협력치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북쪽면 관내 자연부락 17개소의 담당경찰관 사전 교체 완료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담당경찰 알리기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주력하고 있다.

변용상 소장은 "대부분 고향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윈윈 전략 민원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의 상당 통로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협력치안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엔치즈, 휴게실 판촉행사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이사장 심민)는 설 명절을 맞아 완주-순천고속도로 오수휴게소(상·하행) 및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상·하행)에서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판촉행사는 26일부터 30일까지 귀성객을 대상으로 임실군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N치즈'를 비롯해 요구르트 등 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통해 매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특히 사업단은 성공적인 판촉행사를 위해 인력과 정비 점검을 마치고 서울 및 수도권, 전라권, 강원권을 찾는 귀성객에게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알려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민 이사장은 "청정 임실에서 고품질의 신선 원유로 만든 치즈와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였다"라며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해 직영매장인 오수휴게소와 광주휴게소에서 14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실N치즈산업의 유통, 판매, 마케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